

무주 고3 학생 대학입시 '호성적' 무주군민 안전한 삶 만든다

무주군·무주교육지원청 교육협력 사업 우수한 성적으로 결실 맺어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가 무주군 관내 고3 학생들의 대학입시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승기교육장에 따르면, 2023년도 대학입시 결과 무주군 소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카이스트 1명, 의약학계열 11명, 서울·경기 소재 대학 26명, 교대 8명, 지방거점국립대학 45명, 국립대학 34명 등에 합격했다.

무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직 정시 합격자 발표가 속속 이뤄지고 있어 정확한 결과를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무주군 고등학교 3학년 153명이 이뤄낸 대학입시 성적으로는 매우 고무적인 입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성과에 대해 학교와 학부모들은 무주군과 무주교육지원청이 수년간 독심 있게 밀어붙인 교육협력 사업들이 호성적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학생 수가 감소하고, 학교가 폐교 위기에 몰리고, 지역이 소멸 단계에 다다른 지금 교육은 무주군 미래 핵심 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시 그 이상의 산촌, 학교 그 이상의 학교를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펼칠 계획이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올해 두 기관의 교육지원 사업은 더욱 야심차다. 그간 실시해 온 협력향상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고2 전체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역사·문화 탐방, 인강 수강료 지원, 대학입시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론, 청소년복합문화센터(가칭 키움센터)건립 등으로 무주군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교육 지원은 더욱 두텁게 했다.

이 같은 교육시스템은 타 시도의 학생들이 무주군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무주군과 무주교육지원청은 향후 설립 예정인 태권사관학교의 완성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 태권도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추진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산골마을에 건강 가득 실은 '행복버스' 달린다

무주군, 무풍·설천면 42개 산골마을 찾아 검진 착수

무주군의 의료·문화 행복버스가 삼도봉 지역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산골마을로 향한다.

무주군과 충북 영동군, 경북 김천시 가 민주지산(1,242m)을 경계로 '삼도봉 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를 운영하면서 산골마을 지역주민의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지난 2015년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에 선정되면서 무주군 무풍·설천면 주민들을 위해 행복버스가 달리기 시작했다.

행복버스는 올해도 지난 8일 무풍면 사동마을회관에서 미항·사동마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무풍 설천 18개 권역 42개 산골마을을 찾아 맞춤형

검진과 상담, 처방, 진료 봉사에 착수했다.

무주군의 경우 매주 수요일(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정에 따라, 설천면과 무풍면을 찾아 마을회관과 경로당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혈액검사, 당화혈색소, 뇨화학검사, 간기능, 신기능, 지질검사와 심전도 검사, B형 간염검사 등을 실시한다.

주민들의 기대를 안고 마을을 찾은 행복버스의 경우 일반 병원과 외과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기능과 시설을 갖춘 셈이다.

또 초음파진단기를 비롯해 X선 촬영기, 골밀도 검사기, 심전도기, 생화학분석기, 체성분측정기, 당화혈색소 장비 등 최신 의료 장비를 갖췄다. 차량에는 간호사·임상병리사 등 8명의 전문 의료팀이 배치됐다.

심근경색증과 뇌졸중 질환 조기증상 및 조치사항과 관련된 동영상 홍보도 함께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의 의료·문화 행복버스가 삼도봉 지역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해 산골마을로 향한다.

장수군,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

장수군은 자연재해(풍수해·수해·설해 등), 화재, 각종 사고와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한 신속한 피해 복구로 농가 보호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은 산출된 가축재해 보험료의 50%를 국

비로 지원하며 지방비는 농가당 최대 140만원까지 예산범위 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대상 농가 중 미등록·미허가 농가는 제외된다.

가입 가능 축종은 총 16종으로 소, 돼지, 말,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과

기타 가축 5종(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이며 축사·시설물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 농가는 재해보험사업자인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삼성화재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범위 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군, 279억원 투입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

무주군이 군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기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총사업비 279억 원을 투입해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1개소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소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군민의 안전한 삶을 만들어 간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을 선정해 교량 가설·방벽 정비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오산리 왕정마을은 지방하천인 대왕천에 인접한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하천 외수 범람 등에 따른 하천시설과 주변 농경지 및 주택 등이 상습 침수피해에 노출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손꼽혔다.

왕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200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까지 오산 가동보 1개소와 일부 구간 제방공사 및 교량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축제공사 및 교량가설 등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은 여름철 태풍·호우 등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읍내3지구(22억) 및 사천 지구(32억)는 지난 2020년부터 급경사지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올해 말까지 사면정비 및 낙석 방지책 설치를 마무리한다.

또한 나립지구 급경사지도 지난해 국비 25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3월 착공해 오는 2024년까지 위험사면 정비를 완료하고 붕괴위험지구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들 재해예방사업이 마무리되면 주민생활편의 제공은 물론 안전한 삶이 제공되면서 정주여건 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 안전재난과 이승하 과장은 "자연재해위험 개선 및 급경사지 정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 육성 지원

무주군은 농업용 드론 전문 자격증반을 육성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병충해 방제와 과종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은 지난 2019년 도부터 도비를 확보해 농업인 4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시험 응시자 중 4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올해도 1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한다.

농민외집 정보화교육장과 반딧불드론교육원에서 실시되는 농업용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과 관련해 사업비도 750만 원을 포함 모두 1천5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주민등록상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무주에 거주하며 운전면허 2종 이상 소지한

관내 농업인이 대상이다. 농업관련 최근 2년 이내 교육시간 및 농사경력과 영농규모 등 선정 기준표를 의해 대상자를 선정 13일부터 1주차 이론 및 모의비행 요령 2주차 기본 비행 3주차 종합 숙달비행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높아지고 있는 드론 자격 취득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 농업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드론 활용 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미래기술의 가치 창출이 기대된다"며 "농업분야 병해충 방제와 종자 파종 등으로 생산비 절감의 효과가 뒤따른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 고원음식연구회 첫 토론회 열려

진안군은 군 농업기술센터 소교육장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 '고원음식 연구 및 학술대회' 추진을 위해 진안 고원음식연구회를 결성하고 첫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회는 진안군민, 음식산업 전문가 등 15여명으로 조직되었으며 앞으로 진안 음식산업 발전 및 학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시로 연구 및 토론회를 거쳐며 신속한 정보교류와 특색있는 진안 음식산업 모색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2020년도부터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진안 고원음식 분야 사업을 공유하고, 연구회의 목적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진안 음식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진안 대표 이미지 확립을 위한 힘찬 포부를 한 데 모았다.

/진안=우태민 기자

무주군, 한우 수정란 구입 이식비 지원

무주군이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 고능력 유전자 수정란 이식을 통해 한우 개량 가속화를 통한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 지원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올해 사업비 7천2백만 원(국비 3천6백만, 자부담 3천6백만)을 들여 지역내 농가에서 사육중인 암소 144두를 대상으로 한우 수정란 구입 및 이식비를 지원한다.

축산업 허가를 마친 암소사육 농가로 한우수정란 구입 및 이식을 통한 개량여지가 있는 농가와 최근 3년간(20~22년) 보 조금 수령액이 적은 농가가 대상이다.

가축사육업 미허가 농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농가, 2022년 축산사업 미완료 및 포 기능가, 위탁우 및 농축협 사육농장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7일까지 보 조금 교부를 결정하며 오는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